

우도 신궁: 신성한 돌

이 석판은 우도 신궁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로 이곳에서 거행된 의식이 신도(神道)보다 주로 불교에 가까운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과거 시대의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이 돌은 15 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사는 본래, 부처님이 신도에서 말하는 신의 화신으로 나타났다는 곤겐님을 모시는 진언종의 불교 사원이었습니다.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보면, 지금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종교가 일본에서 10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현재 진언종에서도 거행되고 있는 불을 사용하는 중요한 정화 의식 ‘호마’는 당시 이 돌 앞에서 치러졌으며 범자(梵字)가 새겨져 있었습니다. 현재 범자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으며 돌 중앙 부근에 동그란 표시만이 남아 있습니다. 이는 메이지 시대(1868-1912)의 신정부가 신도와 불교의 분리를 명하면서 신도(神道)의 신사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없애고자 했던 1868 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불교의 건조물과 조각상,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. 불교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야자키와 다른 지역에서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을 없애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.